



본래자성불 닮고 지금 현재 자기 꾸하고 상봉을 해야!

(지난 호에 이어서)

또 어떤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 스님은 가르치느라고, 지금도 낫대들, 낫대밭을 주욱 걸어 놓고는 '요기에 모두 걸리지 않나, 걸리나?' 하고 그렇게 선조들께서 해 놓으셨죠. 천 칠백 공안이니 뭐 여러 가지로 해 놓고, 천칠백 공안밖엔 안 됩니까? 이 세상에 어느 공안 아닌 게 없죠. 해탈 아닌 것도 없고 도량 아닌 데도 없고, 나아남도 없고, 모두가 그런 도리죠. 그런데 주욱 얹혀 놓고 하는 소리가 '너, 쌀 아닌 쌀을 아느냐?' 이러니깐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쌀 까지 않은 게 쌀 아닌 쌀이죠.' 했단 말입니다. 허허허. 그것도 맞죠, 맞아야. 응. 하지만 그거하곤 정반대죠. 그래 또 한 사람한테 물기를 '너는 그 쌀을 씻어서 밥을 할 때에 밥을 하지 않고 밥을 할 줄 아느냐?' 아, 그러고 물으니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 물기를 '너는 밥 아닌 밥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저 '밥 아닌 밥은 전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저 잡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저 처사 말하듯이 "그냥 잡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지. "음, 너는 그래도 좀 빠대귀라도 얻은 듯하구나." 이러더라는 거죠. "저것들은 모습, 가족도 얻지 못했어." 그리고 그랬는데 또 한 사람한테 물기를 '먹는 사이 없이 먹을 줄 아느냐?' 하고 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스님은 아무 소리 없이 나가더니 수박 한 통을 떡 쪼개 가지고 터억 갖다 놓고는 삼배를 올리고 가만히 앉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냇말로 대뇌의 (머리의 왼쪽과 오른쪽을 차례로 짚으시며) 잠재의식 쪽, 현재 의식 쪽이 다 결합이 됐구나, 하더라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말입니다. "계합이 됐구나!" 이라고선 "너는 참 골수를 얻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 절절 웃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무걸 떠다 대도 되겠죠. 그리고 이 도리를 공부하면 책을 봐도 벌써 심심하고요, 그 몇 구절 이력하면 '아, 그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뜻으로 나오지 말로, 이론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요, 거기 그 뜻에 다 있는 걸요.

그러니 앞으로 이 공부하는 분들은 좀 더 살림에 꼬달리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은 넓게 보면 나그네요, 좁게 보면 한 철, 찰나, 하루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다' 이런 뜻을 아십니까? 어떠한 뜻입니까? '하루살이다' 하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하루살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나 모두가, 시공이 돌아가는데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 이 소리는 '여러분이 초월해서 돌아가라. 거길 따라서 돌아가라.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걸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라 해도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루도 안 들어가니까, 찰나다 이겁니다. 찰나! 여러분이 찰나찰나 사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금방 드러누웠다 금방 일어났다, 뭐 금방 전등 켜다가 금방 또 딴 사람 만났다, 금방 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찰나 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루라는 게 거기 왜 들어갑니까, 응?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모기더러 말합니다. "술 한잔 먹자."

하니까 모기가 "내일 술 한잔 먹자."고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도 있나?" 그러더라는 거지. 허허허.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진정코 믿는데도 참 그계 일이 영 안 풀리고 죽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건 모두 당신네들 탓이다 이겁니다. 왜? 그만큼, 가만히 시험을 해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자기 주인공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이 자기를 올려놓을 수 있고 한 생각에 자기를 구렁이애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애 정성을 지극히 들이고 갔는데 고만 자기가 아프거나, 고만 일이 안 됐거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굶어서 부스럼 만든 겁니다. 그게. 왜?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했냐? '에이, 그것 아리송하고 그거 뭐야? 체계도 없고 말이야.' 이라고 그냥 불신하고 생각을 할 때 잘못하니까, 그건 자기가 똑바로 가르치려고 자기가 자기를 지금 지도해 나가는 거죠.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도록, 뼈뚫로 나가지 않도록, 오직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부터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자기가 나오기 이전의 영혼은 바로 엄마 아버지의 정자 난자에 배합이 돼서 삼합이 합해져서 탄생을 하는 거다. 임신이 되는 거다. 자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임신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합쳐져도 영혼이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삼신이라고 했고, 삼신이 받아들여야, 삼신이 합해져야 임신을 한다고 그래서 삼신에게 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삼신도 여러분한테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떼 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생각에서 여러 가지 찰나찰나 하시듯이 그렇게 보살의 이들도 많고 부처님의 이들도 많지만,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시고 보살의 그 많은 이들도 바로 부처님의 화신(化身)인 이 름일 뿐입니다. 다. 그냥, 전체가. 그러니 화신

보살한테 부처님께서는 핵이 돼서 말입니다, 핵이 돼서 위도 아래도 없는 중도(中道)의 밥그릇에다가 밥을 한 그릇을 준 것은, 즉 말하자면 보살한테는 칠보가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한테 주고도 줄지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게끔 항상 내고 들고 해도 항상 되남더라, 이런 게 보살의 뜻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모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살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화신들이다.' 라는 얘깁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닌 게 부처님이니깐. 진리입니다. 하도 이름이 많고 나 아님이 없으니까 뭤로 부처를 세울 게 있어야지.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어떻게 살면서 여러 식구가 그저 찰나찰나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떤 거 할 때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죠. 친구를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할까요, 자식을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할까요, 부인을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할까요.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한마음의 본래자성불은 한마음이 붙어서 서로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아주 견고한 마음으로 항상 진짜로 믿고 행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아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고라는 걸, 자기 몸에서 고라는 거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어디 가서 털퍼덕 앉아도 하나도 걱정이 없고, 먼지 앉을까 봐 걱정 없고, 먼지가 묻을까 봐 걱정도 없고, 기생이 와서 안겨도 걱정이 없고, 내 마음은 물들지 않아. 취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저 사랑한다고 한 번만 안기면 그냥 붙들고는 죽자 사자 하고 그러니 사고가 안 나, 응? 벌써 겁새를 재지. 이러니 모두, 허허. 에휴, 에휴, 참! (대중 웃음) 여러분이 바보예요, 모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편리하고 남을 이익 하게 할 수 있는데 말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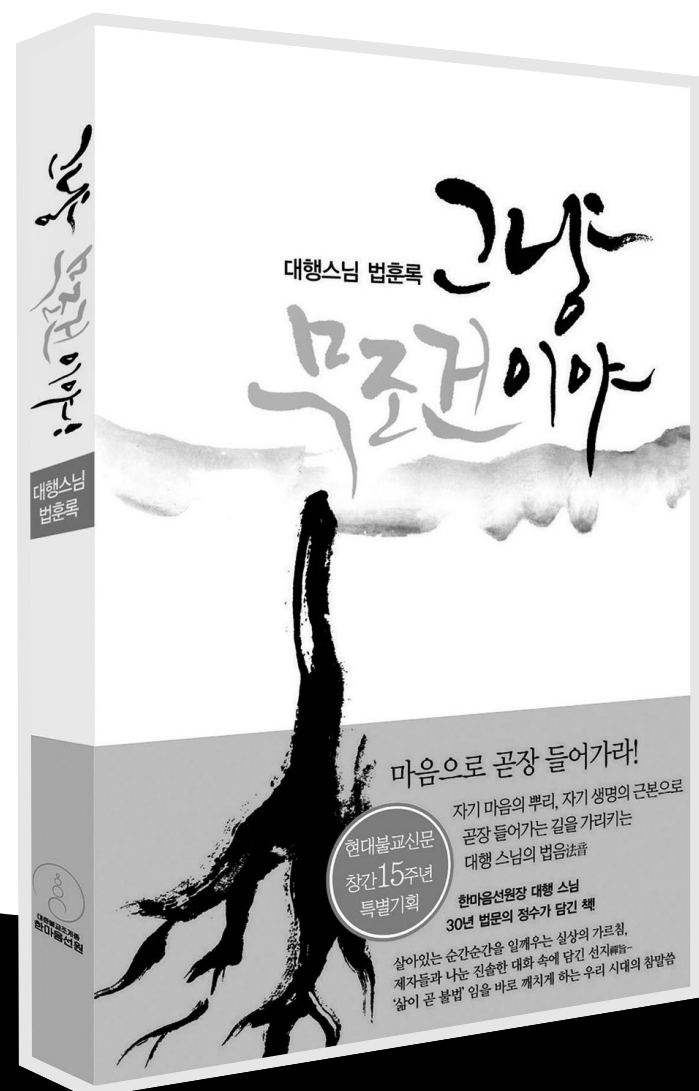
어떤 사람이 이랬더라요, 어떤 한 가련한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서 딸이 사는데, 그 딸이 시집도 못 가고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너무 착하게 하니까, 어느 스님이 가다가 참, 불쌍하고 안됐거든요, 마음으로나 뜻으로나 그냥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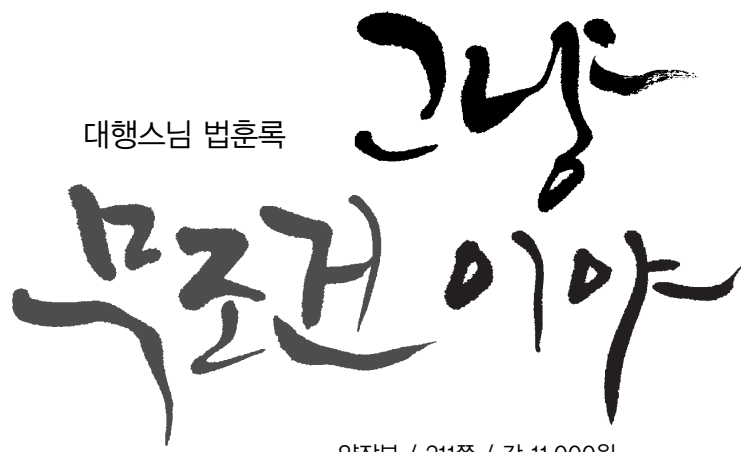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나 자신의 생활이 그대로 바로 삼매가 될 수 있어야!

29면에서 계속

보시를 듬뿍 한 겁니다. 듬뿍 하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시집가고 거기서 아들 하나를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을 해가지고 살림을 다 해 나가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거는 진짜 행(行) 보시며 바로 마음의 보시가 그렇게 컸던 거죠. 여러분이 보시를 할 때 이쪽은 이쪽대로 병들게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병들게 하는 그런 마구니가 되지 마세요! 네? 그러다보면 정말 이거는 여러 사람 죽이는 겁니다, 모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보시는 그게 아닙니다. 모두, 내가 이런 게 (함장 하시며) 다 보시지 보시 좋아하시지 마세요. (대중 웃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효 대사가 파계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보시인 것입니다. 원효 대사가 처음에, 예전에는 장질부사를 많이 알아서 죽으면 송장을 원두막에다 갖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넣고는, 먹을 거 갖다가 넣고는 돌보지 않습니다. 갖다 버렸지.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 들어갔거든요. 킁킁한 데 거기 들어가서 터억 드러누워서 그냥 풀아떨어졌는데, 아주 목이 말라서 배는 고프고 그랬으니 얼마나 죽겠습니까? 여러분도 무척 잘 아시는 얘깁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거기에 장구벌레가 잔뜩 들고, 물이 그냥 하나 고인데다가 지붕은 새고 그러니까 그냥 전부 고였거든요, 썩어서. 그런 거를 맛있게 먹고는 터억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장구벌레가 우글우글하더라는 겁니다. 그 장구벌레를 몰하고 다 먹었다는 얘깁죠. 그러니 구역질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자 구역질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때는 생각을 안 하고 몰랐고, 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었고, 내가 지금은 보고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이 탈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아예 해골바가지로 인해서 도를 깨쳤으니까 의상 조사는 의상 조사대로 가라고 그리고 자기는 당나라에 공부하러 안 갔던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은, 생각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생각을 낸 것도 아닌데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는 얘깁니다. 이것도 관문이 될 수 있고 이것도 화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화두를, 이거 배우기 전에 화두를 갖고 하지 말고, 내 몸뚱이를 화두로 알아라 하는 겁니다.

또 한번은 대안 대사(大安大師)가, 즉 말하자면 늑대 세끼가 죽어서 아, 좋은 데로 가라고 염불을 하려고 그러니까 갖다가 턱 놓더니 젓을

먹이더라 이거야. 그 죽은 데다 먹인 게 아니라 산 새끼한테다 먹이면서 이게 바로 천도다 이거야. 거기에서 또 그것도 화두가 될 수 있고 관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해 드려요. 만약에 젓을 먹이는 것이 방편이고, 내가 그 의식을 갖다가 나한테다가 놓았다고 본다면, 둘이 아니라면 그 무명만 죽었지 바로 내가 된 겁니다. 내 속에 넣었으니 내가 된 겁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항상 그러죠. 좋은 데로 가게 하려면 내 주인공에 넣으면은 그대로다. 그대로 요리가 돼서, 벌써 거기서 한 바퀴 굴러서, 굴러 가지고선 천도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또 즐지 않죠. 넣어도 그런 게 없는 거니까. 이렇게 자세히 떠 먹여도 모르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그러니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즐지 않는다. 이 마음은 체가 없다. 의식 자체가 체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도리를 스스로 증득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관문이 될 수 있죠. 화두가 될 수 있구요.

또 한 가지는 무애가도 불렀는데 "도끼 없는 도끼를 어느 누가 자루를 맞춰 주랴? 그 자루를 맞춰 준다면 기동 없는 기동을 깎아서 하늘을 받치려만..."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것도 관문이 되고 화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도끼 없는 도끼의 자루를 맞춰 준다면 기동 없는 기동을 깎아 하늘을 받치려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자루를 맞춰줬더군요. 아, 그리고선 하늘을 받쳤더군요. 그래서 신라가 그렇게 됐더군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고 있으니까 "원효 대사가 원효 대사답지 않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니까 "그 눈물 흘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소?" 했어요.

여러분이 그 뜻을 잘 아신다면 앞으로 아주 재빠르게,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역사를 좋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금 영국이나 서독이나, 내가 알기로는 서독이나 또 미국 사람들도 많이 마음을 갈구하고 있어요. 아주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절마다 기복이고, 절마다 죄를 씌워 주고 있어요. 한 민족이면서도 한 불자면서도 가톨릭교 기독교

불교, 이게 전부 불자지, 불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입니다. 좋은 말 해 주는 거를 교(敎)라고 하니, 그러니 바로 불교 하나도 불교 아닌 게 어딴겠습니까?

그런데 발로 밟백 번을 뛰어 봤자야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지금 세대에, 이 마음이 한번 뽀뽀는 저런 타의 국(國)에도, 국이라는 건 지금 시 첫말로는 혹성을 말하는 겁니다. 타국(他國)을. 부처님께서는 그때 모두 모르니까 타국이라고 그랬죠. 서천국이니 타국이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타국에서도, 타국 보살들 일체가 다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찰나찰나 들고 납니다, 우리의 한생각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상구보리 하회중생을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뛰면서 상구보리 하회중생이 된다면,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보살이면서 진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부처가 되기 때문

무너지는 데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마음으로 육체가 움죽거리게 돼 있지, 육체로부터 마음이 움죽거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육체로부터 마음이 움죽거리고 마음으로 부터 육체가 움죽거리고, 그렇게 둘이 아니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한 마음, 내가 제일이라는 당당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울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항상 중심에다가 두십시오. 중심은 여러분이 깨치지 못했으면 중심이고 깨쳤다면 중도입니다. 또 깨쳤다면 중용이고 깨치지 못했다면은 활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와 모두 한 도량에 한 도량으로서 공부하시는 거지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앉았을 때는 더 잘났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일체가 둘이 아닌 깨달음에요.

응해 주시고, 또는 독성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응해 주시고, 자꾸 몸을 화해서 보이는 그 모습 없는 모습이 자꾸 이렇게 화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응해 주신다. 그래서 삼십이응신(三十二應身)이 응해 주신다. 이러는데, 삼십(三十)이라는 거는 숫자로 말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불가사의한 법 그거는 저런 혹성도 바로,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이치도 있지 마는 만약에 내가 한생각을 하면은 타국에 있는 보살들도 또 어떠한 부처님들도 다 한자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한생각에, 한 찰나에 드셨다가 한 찰나에 나시고 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도리와 법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신다면, 인간 된 도리에 정말이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됐다면 그쯤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죽은 생각이나 산 생각이나, 모습 없는 사람이나 모습 있는 사람이나 다 응해서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 일입니다. 건지는 데 건지는 것도 공해서 내가 한 일이 없노라. 내가 한 일도 아니요, 내가 안 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부처는 이름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팔십종호(八十種好)라고 했죠. 응? '종'도 '호'나라 이거야. '종'이라는 그 말 자체도 '호'다 이거야. 단군할아버지는 또 일상생활에서의 사람 뉘뉘를 가르치셨고 또 남긴 거는 팔십일자를 남겼습니다. 처음하고 끄트머리만 얘기해도 그거는 전부 알 바가 있는 겁니다. 팔십종호라고 말씀하신 분이냐 팔십일자를 남기신 분이냐 똑같다 이겁니다. 일시무시(一始無始), 일종무종(一終無終) 얼마나 그게 다양합니까? 뭐가 다릅니까? 일시(一始)가 무시(無始)고 허허, 일종(一終)이 무종(無終)이다 이거야. 그랬으니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그분들 석가세존이나 단군할아버지나, 우리네 육의 어머니, 아버지, 조상들이 전부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써,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조상은 둘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 조상까지도 둘이 아니다 이거야. 내 조상이 본래자성불(本來自性佛)이거든요. 그러니 본래자성불 아버지하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식하고 상봉을 하십시오. 모두 상봉을 해야 합니다. 남북이 터져서 상봉을 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한몸 안에, 부(父)와 자(子)가 있으면 한몸 안에서 따로따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와 자가 상봉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 위 법문은 1989년 11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항상 그러죠.
좋은 데로 가게 하려면 내 주인공에 넣으면은 그대로다.
그대로 요리가 돼서, 벌써 거기서 한 바퀴 굴러서,
굴러 가지고선 천도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에, 모두가 부처는 한 부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깨쳐도 부처님은 한 부처님입니다. 모두가 한자리니까요. 그거를 표현해서 항상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죠. 다보탑(多寶塔 다지탑)에 같이 이렇게 앉은 그런 이치가 있죠. 아마 경을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난 그런 걸 보지를 못했어. 얘기만 들었죠. 다보탑에 이렇게 한자리를 했죠. 반 자리를 내놓고, 반 자리를 내놓은 뜻이 무엇이나?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자리가 두 자리 아니라는 뜻입니다. 깨치면 두 자리 아니고, 깨치지 못하면 중생들이며, 이견 천차만별로 벌어진 그 자리가 그렇게 고역인데다 꼬달리고, 그렇게 많은 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 도리를 아신다면, 아까 이 기초적인 문제에서 제일 그게 중요하다고 한 그 뜻을 잘 아신다면 말입니다. 어느 스님이 말한데도 뒤집어쓸 필요도 없고, 뒤집어 씌어서 받을 필요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지옥에 든 일도 그건 풀려납니다. 이견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옥고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할 것은, 여러분이 와서 용건을 얘기하고 대답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가세요. 왜냐? 그것은 비밀이니까 말로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다 공부하신다면 내 속을 다 알아서 같이 아마 등장할지도 모르죠. 여기서 뉘뉘는 항상 말을 하고 보고 이러면서 도 삼매에 드는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드는 것이 삼매가 아닙니다. 눈 뜨고, 그냥 치켜뜨지도 말고 내려뜨지도 않는 눈이 바로 그게 삼매입니다. 그 도리를 말한 거지 진짜 눈을 그렇게 뜨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가지라는 얘깁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선이요, 일상생활에서 화두요, 일상생활에서 바로 중용이 나오고 그대로, 나 자신의 생활이 그대로 바로 삼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야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여기서는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나기도 하나로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나투는 거, 수없이 화(化)하는 거. 천백억화신이다. 사람들이 산신을 원하면 산신의 모습으로 화해서 응해 주시고, 또 칠성을 원하면 칠성으로 모습을 나투어서 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 m.btn.co.kr

2015년 11월 2일 부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가을 대개편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변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공익을 실천하겠습니다.

법륜스님이 안내하는
불타의 길 깨달음의 길

월 오전 11:20 수 밤 11:00 / 목 오후 3:50 / 일 오후 6:50

세상 만사
우리의 토

수 오전 11:20 목 밤 11:00 / 토 오전 8:30

목적에세이
프견치

화 오전 11:20 토 오후 1:50 / 일 밤 9:50

대행도입
소풍

화 오후 7:30 수 토 오후 1:20 / 금 오전 6:20 / 일 오전 8:50

이것 감사한다

화 오후 2:50 목 밤 8:00 / 일 오전 11:20

생방송 **BTN**
전문출설

수 오후 1:50 금 밤 12:00 / 일 오전 4:00

BTN 은 모든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71번 olleh HD 233번 B tv HD 555번 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